

檢·警 수사권조정 놓고 또 설전 형소법 개정에 관해 2시간여 공방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3일 검경 관계자들이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토론 자리에 모여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처음부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검경 관계자들은 수사권조정 문제 핵심인 경찰수사에 관한 검찰 지휘와 형소법 개정 문제 등을 두고 2시간여간 공방전을 펼쳤다.

김학배 경찰청 기획수사심의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검사의 독점적인 수사구조는 일체 수사권을 계승한 것으로 파소적인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런 독점적 구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기획수사심의관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같이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에 맞게 검경이 합리적으로 수사권을 조절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회재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은 “검찰은 지난 8개월동안 경찰과 수사권 조정을 놓고 논의를 해왔으며 경찰수사에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단지 독자적 수사권을 달라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경찰 요구처럼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수사가 이원화돼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수사체계에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수사권 조정팀장은 “대부분 사건에 있어 경찰이 독자적인 수

사를 펴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라며 “영장신청과 사건종결권은 검찰이 통제하되 수사 사건에는 검찰이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황 팀장은 또 검찰 수사견제와 관련 “현재 검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으며 수사지휘로 부당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과연 국민이 어디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훈 부부장 겸사는 “경찰은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송치전까지 검사지휘를 받지 않는대거나 일부 민생사건에 대해서는 송치전 검사지휘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수사조정방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다.

차경환 부부장겸사도 수사, 소추기관 분리 주장에 대해 “외교부가 잘못한다고 해서 제 2 외교부를 만들 수 없으며 경찰이 치안을 잘못한다고 해서 검사가 맡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주장에 맞섰다.

김 기획수사심의관은 검찰 수사권 개선과 관련해 “검찰이 여러 부분 개선했다고 하지만 수사권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은 전혀 개정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를 보장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차 부부장겸사는 “형소법 개정문제 관련해서는 단지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인권이나 권력구조 전체와 연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큰 그림 속에서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맞섰다.

「청렴경찰 실천 결의대회」개최 전국 경찰관서 일제히 실천의지 천명



경찰청은 최근 경찰청 대강당에서 경찰청내 전 경찰관 참석하에 “청렴경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경찰 60년을 맞아 새롭게 태어나는 깨끗한 경찰로서 청렴생활 실천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는 행사를 실시하는 등 전국 253개 관서에서 일제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 경찰관이 ①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②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신념, ③公私 생활에서 공직자의 본분 준수, ④청렴사회 시민문화 운동 동참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굿데이

쌍둥이 女警, 동갑 경찰관과 합동 결혼

경북 경산경찰서에 함께 근무중인 쌍둥이 여경찰이 동갑내기 경찰관을 배필로 삼아 지난달 29일 낮 대구시 북구 문화에 솔회관에서 가족과 동료들의 축하속에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경사의 주인공은 경산경찰서에 근무하는 박영조(27세, 압록지파), 미조(27세, 생활안전파) 순경으로 2003년 6월 함께 순경계급장을 단 대한민국 최초의 쌍둥이 여경이다.

언니 영조씨는 경산경찰서 사고조사계장 이진식(27세, 경찰대 18기) 경위와, 동생 미조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특별기동순찰대설진원(27세) 순경과 천성배필의 연을 맺었으며 공교롭게도 두쌍 모두 27살 동갑내기다.

이들 쌍둥이 자매 경찰은 초·중·고·대학교까지 함께 다녔으며 결혼도 한날한시에 같은 경찰관을 배필로 치르는 우애를 과시했다.

미조씨는 경찰시험을 준비 중이던 2002년 학원에서 설 순경을 만나 사귀어오다

경찰이 된 후에도 경북과 서울에서 떨어져 사랑을 키워왔으며 언니와 이 경위의 민남도 주선했다.

대권도 공인 3단인 동생은 지난 해 9월 경찰청이 주관한 체포술 대회에 경산경찰서 대표로 이 경위와 함께 참가한 것을 계기로 언니에게 이 경위를 소개해 결국 형부로 맞이하게 됐다.

특히 쌍둥이 자매의 오빠인 박종규(32세)경장도 경산서에 함께 근무해 3남매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미조씨의 신랑인 설 순경의 고모는 여성으로는 지방에서 처음으로 총경으로 승진했던 대구지방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 설용숙(47세, 여) 총경이어서 그야말로 경찰관 집안의 잔치이자 겹경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례를 맡은 김석기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주례사를 통해 “같은 직업을 가진 만큼 서로 이해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가정에서도 임포부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 형집행장 남발” 인권위 진정 경찰간부, 인권유린적 지시 거부 못하는 건 노예조항 때문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이 벌금·구류 등 재산형 대상자에 대해 형집행장을 남발해 이를 강요 받는 경찰과 시민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정인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조정 문제를 놓고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인권침해는 검찰과 경찰의 대응하지 못한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경릉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인 장신중(50세) 경정은 지난달 4일 “검찰에서 민사 소송 절차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벌금·과료 등 재산형 대상자에게 형집행장을 남발하고 있어 불법적인 체포·감금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장 과장은 “형사소송법상 경미한 범죄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벌금을 징수하도록 규

정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당사자에 대한 벌금납부 통지조차 단 1차에만 한 후 즉시 수배조치와 함께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집행장은 사실상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살인·강도 등 중범죄자에 대해 발부하는 것”이라며 “형집행장이 매년 60만~70만건이나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검찰이 합법적으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법 체포, 긴급체포 그리고 영장에 의한 체포뿐이지만 검찰의 벌금미납자 체포라는 황당한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현장 경찰관의 입장에서서는 자괴감을 느낀다”며 “검찰 업무때문에 그 비난은 경찰이 모두 뒤집어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형집행장의 남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수차례 대검찰청에 글을 올렸지만 전혀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결국 검찰의 인권 유린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게 됐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경찰이 이런 위법적 인권유린적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데는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의 수사지휘권이라는 노예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그는 “형집행장 문제는 특정기관이 다른 기관과 일방적인 지배 종속 관계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검·경 관계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경찰 뿐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있는 모든 국가기관과 일방적인 지배종속 관계를 설정하여 놓았고 사법경찰관이 있는 국가기관은 검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절도는 10대, 강도는 20대, 성폭행은 30대 - 경찰청, 1분기 범죄 작년보다 17% 감소 발표 -

범죄 피의자를 나이별로 분석한 결과 절도는 10대, 강도는 20대, 성폭행은 30대, 폭력은 40대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에는 폭력, 금요일은 강도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1분기 치안지표'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에서 발생한 총 범죄는 39만3천76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2% 감소했으며 5대 범죄(강도·절도·살인·폭력·성폭행)도 9만9천124건으로 4.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범죄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절도는 19세 이하가 31.5%로 가장 많았고 20-30세 22.7%, 31-40세 20.1%, 41-50세가 16.6% 순이었다. 성폭행은 31-40세가 전체 피의자의 34.1%, 41-50세가 27.4%, 20-30세가 24.9%였으며 폭력 피의자의 29.8%는 41-50세, 27.9%는 31-40세, 22.7%는 20-30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도 피의자의 29.7%는 20-30세였고 19세 이하는 28.2%였다.

요일별로는 강도 사건은 금요일(17.4%)에 가장 많이 일어났고 성폭행은 화요일(15.7%)과 토요일(15.6%), 절도는 월요일(15.1%), 폭력은 토요일(15.5%)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주요 범죄 모두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주로 발생했으며 절도는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도 24%가 일어났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빈집털이와 금융기관 주변 날치기 등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의 47.1%가 사는 7대 도시(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대전·광주)에는 강도의 53.6%, 폭력 53.4%, 성폭행의 50.4%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살인(44.5%), 절도(45.1%) 사건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범죄 유형별 증감률을 보면 절도와 살인은 각각 4.6%와 0.8% 증가한 반면 강도는 26.1%, 성폭행은 6.4%, 폭력은 9.0% 감소했으며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도 10-27.3% 줄어 경제회복 움직임에 반영한 것으로 경찰청은 분석했다.

또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3.3명(연간 추산)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졌고 울퉁불퉁 집회·시위는 8.5% 늘었으나 폭력시위와 경찰부상자는 33.3%와 82.3% 감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1분기 자료를 토대로 인구 10만명당 연간 범죄건수를 추정한 결과 살인 1.9, 강도 9.7, 성폭행 11.8, 절도 295, 폭력 511건으로 폭

력사건을 제외한 주요 범죄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폭력 사건은 일본의 10.4배, 미국의 1.7배, 러시아의 4.0배, 독일의 3.0배, 프랑스의 1.3배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스쿨폴리스제」 학교서 좋은 반응 전국 확대실시 바람직



스쿨 폴리스가 학생들과 상담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이 시범운영하고 있는 스쿨폴리스 제도가 약 한달 가량 운영한 결과 일부 교사들이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학교 당국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며, 스쿨폴리스로 인해 자녀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경찰청에서는 이번 스쿨폴리스 지도점검 및 그 지원을 위해 기획팀은 1일 1개교 방문, 애로사항 청취 및 학교장 등과 효율적 운영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으며, 지원팀에서는 관할서장, 지구대장, 여청계장이 주1회 스쿨폴리스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하는 한편 학교와 협조하고, 관할 지구대와 형사는 우범지역, 유해 환경 단속을 벌이며 학부모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은 스쿨폴리스의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몸이 아프거나 선배들로부터 괴롭힘 등을 당하러 스스로 스쿨폴리스 사무실을 찾기 시작하는 한편 스쿨폴리스들이 순찰시 깃듯이 인사하는 등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던 일부교사들도 약 4주간의 활동사항을 지켜보고 있지만 부정적 시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학교 당국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이제는 자녀들이 학교 내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 믿으며, 스쿨폴리스 제도가 대부분 꼭 필요한 제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쿨폴리스 제도는 교내 활동의 시간적·공간적 제약, 지원 활동 등 학교 방면에 대한 일부 교사들의 거부감 표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데, 이와관련 부산경찰청은 향후 법률상담, 등·학교길 교통지도, 유해환경 정화와 학생·교사 관련 경찰관서 업무 지원 등 공감대 형성 등 학생·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활동을 집중함으로써 실효성 확보차원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추가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스쿨폴리스의 자율활동을 적극 지원해 효과를 극대화하며, 요원간의 수범사항 등 정보 교환, 전문 상담소 등 협력 체제구축, 유관기관이나 단체들과 협의해 전문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故 서영호 치안감 영결식 거행 新任 女警 졸업식 연습지휘중 쓰러져

지병에 격무까지 겹쳐 순직한 서영호 치안감(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한 장례식이 5월 23일 오전 10시 경찰청사에서 오영교 행정

자치부 장관, 허준영 경찰청장, 구홍일 경우회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 및 유가족, 내빈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警察葬으로



엄숙하게 거행되어 故人을 추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故 서영호 치안감은 지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위에 이 사실을 숨긴채 다음날 있을 신임 여경 졸업식 예행 연습을 지휘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이날 조사를 통해 '동지께서 남기신 위업과 발자취가 경찰사에 영원히 빛나게 하고 당신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꿈들이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묵묵히 앞을 향해 전진할 것을 머리 속에 다짐한다.'고 밝혔다.

항당뉴스

1살배기를 절도 공범으로 체포

멕시코에서 아버지의 절도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1살배기 어린 아이를 체포한 경찰이 비웃음을 사고 있다.

지난달 21일 멕시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유카탄 주 푸에르토 프로그레소 시내 한 슈퍼마켓에서 전날 보드카 6병을 훔치려던 로제르 사군도(28세)가 슈퍼마켓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사군도는 훔친 보드카를 유모차에 감춘채 슈퍼마켓을 빠져나가려다 이 사실을 눈치챈 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군도와 함께 1살배기 아이까지 연행해 절도공포 혐의로 체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군도는 유모차 안에 보드카를

숨긴 채 돈을 내지 않고 슈퍼마켓을 빠져나가려 했기 때문에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들은 훔친 물건을 감춰준 공범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이 뿐 아니라 경찰은 보고서에서 1살배기 어린 아이에 대해 ‘최연소 법규위반자’라는 기록을 남겨 검찰로부터도 아이없는 초저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멕시코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아이의 어머니는 경찰서를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몇 시간 동안의 실랑이 끝에 ‘구급상태’에 있던 아들을 찾은 뒤 “1살짜리 아이를 범죄자로 기록한 경찰이 도대체 제정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우신문 기고문은 이렇게!

時論, 提言, 독자의 소리 등 경우신문에 기고하실 분은
경찰발전이나 경우회 활성화 등 전현직 경찰과 관련된 내용을
200자 원고지 8매이내(A4용지 기준 2장이내=글자급수 14포인트)로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